

(주)코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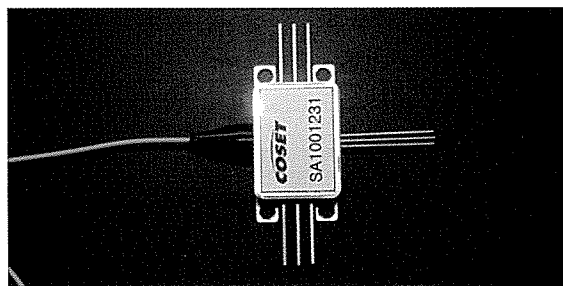
- 대표이사: 김재현, 임성은
- 설립년도: 1999년 10월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 주생산품: 광통신용/산업용 펌프 LD, Cooled DFB-LD, Lensed Fiber
- 전화: 062-602-7771
- 팩스: 062-602-7770

www.coset.com

빛고을 광주로 확장 이전 밝은 미래를 준비

LD 패키징 분야 전세계 생산기지로 키워나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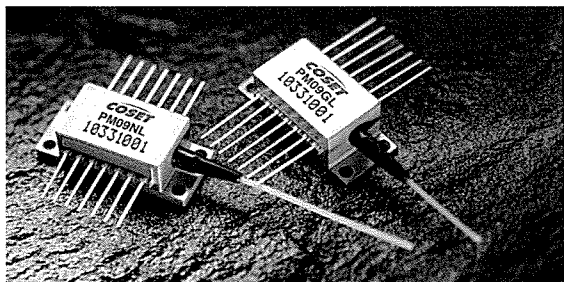
지난 1월 최근 수도권에서 광주광역시 광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 시설을 한꺼번에 옮긴 회사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999년 설립 이래 경기도 성남에서 고출력 고정밀 레이저모듈 패키징 전문업체인 코셋(대표 김재현, 임성은 <http://www.coset.com>)이다. 지난해 40여억원 매출과 임직원 30명 규모의 제조업으로서의 사업장 이전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과감한 이전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이에 대해 임성은 사장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광주광역시도 광역시차원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육성발전 의지가 확고한 광산업을 러스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연구개발, 산업지원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수평적, 수직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관련 광공업 들도 많이 있다. 이미 이들과 공동개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임직원들이 처음에는 생소한 지방도시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 일부 가족들의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답사를 해보고 나서 다들 생각이 바뀌어서 놀랍게도 자녀들까지 모두 이사를 하는 정도다.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여직원 한 명 외에



30명 직원 전원이 회사를 따라 이사를 한 셈이다. 어쩌든 회사와 같이 해준 임직원들이 고맙고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에서의 비전에 대해 임성은 사장은 "비전을 기다들기에는 많이 바꿨다. 분명한 것은 임직원 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행복하지 않고는 회사의 어떤 비전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선 3월부터 물량증가를 앞두고 시설투자과 인력확보가 급하다. 또한 고출력 고정밀 LD 패키징 분야에서 전세계 생산기지로 키우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선진국 서너개 회사들만이 가진 기술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광주가 가진 양질의 인력과 자원인프라라면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100억원 매출달성을 할 수 있을 것

최근 영업상황과 투자계획을 묻자 김재현 사장은 "한마디로 영업 상황을 말하자면 '수요증가 단가압박'이다. 수출이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해 최근 원화환을 움직임이 수익성을 크게 해치고 있지만 버틸만하다. 코스트리더십을 공고히 할 체질강화의 기회로 삼으





려 한다. 철저히 가치경영을 통해 지난 3년처럼 올해도 2배 이상 성장해서 100억원 매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오드레이저(LD)는 나오는 빛의 대부분이 발산(퍼져)되어 나오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파이버에 넣어야 요구하는 목적에 편리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용화된 광파이버의 빛의 통로는 1000분의 5미리에서 1000분의 60미리이다. 또한 다이오드 레이저에서 빛이 나오는 입구는 1000분의 2미리에서 1000분의 5미리이며 빛이 5도에서 35도 각도로 퍼져나온다. 따라서 이 빛을 가능한 한 많이 광파이버에 넣으려면 다이오드레이저의 빛나오는 입구와 빛을 받아들이는 파이버의 입구를 잘 맞춰야 하고 안전하게 계속 유지하도록 Align(정렬)과 Fixing(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1만분의 1미리의 정밀도를 요한다.

코셋은 이러한 핵심기술을 토대로 하여 설계, 제조공정, 측정, 신뢰성 검증기술 등을 통하여 레이저모듈 제품을 만든다. 레이저모듈 제품의 응용은 광통신과 산업용 분야가 주를 이루지만 의료, 센서, 계측, 방위산업용 등 분야 응용의 폭과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셋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우선 광통신에서 광신호를 증폭해주는 광증폭기의 핵심부품인 Pump Laser이다. 세부적으로 펌프레이저의 종류는 레이저 출력(Power, 100mW~400mW)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 진다. 또 하나 대표적인 제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마킹, 용접, 가공 등 산업현장의 새로운 레이저 소스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Fiber Laser의 핵심부품인 레이저모듈이다. 또한 고객이 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에 따라 모듈외곽 형태, 제어 핀수도 달라진

다. 이러한 모든 등급이나 옵션에 따라 가격도 달라진다.

인원과 설비를 확장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응

이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JDSU, Bookham, Avanex 그리고 일본의 Furukawa 정도이며 코닝, 알카텔, 미쓰비시, 어기어 등 많은 선진업체들이 원가경쟁력의 한계로 지난 수년간의 시장침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술력과 신뢰성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였다.

중국에서도 Photontec 등 몇몇 통신부품업체 등이 수년 전부터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으나 품질과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시장진입을 하지 못하고 미국산 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펌프레이저 기술은 기술진입장벽이 높고 장기간의 투자와 노후가 쌓여야만 개발과 시장진입이 가능한 것이다. 코셋도 핵심인력들이 삼성전자에서 5년 이상 그리고 설립 후에도 3년이 넘게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양산 기술을 개발하였고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통신시장은 장거리, Metro, Access, FTTH등의 분야로 나누고 최근 Access(Mini-DIL Pump), FTTH(WDM-PON, Triplexer) 시장에 신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용으로 고출력 파이버레이저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레이저 마커, 용접용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코셋은 최근 들어 이 분야에 수주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큰 시장 잠재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광통신 시장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2005년도를 기점으로 뚜렷하게 시장이 회복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그 증가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하여 코셋은 인원과 설비를 확장하고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빛고을 광주로 확장 이전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KOSSET